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129.7	16.3	129,000	3.6	8.4	0.8	0.4	89.9	43.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45.6	22.1	340,500	-0.4	-0.4	-2.4	-1.6	4.6	3.8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70.2	5.9	23,100	-2.1	-6.5	-26.2	4.1	2.2	1.9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43.7	11.0	47,900	-2.2	-3.9	-14.3	12.2	3.0	2.2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367.6	19.7	8,520	3.6	0.1	-3.9	15.0	53.7	26.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89.4	11.6	29,750	2.4	3.5	-12.0	-12.9	10.4	16.5	0.9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272.7	13.3	56,900	1.2	-3.2	-4.0	-5.2	12.3	8.9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74.5	3.3	1,645	0.0	N/A	33.2	-0.6	33.1	8.3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335.6	20.6	86,000	0.0	-7.5	-27.4	-19.6	15.2	14.8	2.1	1.9	14.6	13.3
두산밥캣	3,373.4	25.2	33,650	5.3	8.0	0.0	6.8	12.3	11.6	1.0	0.9	7.4	7.6
현대로템	1,823.3	4.2	21,450	-1.2	-8.1	-24.5	-23.0	27.7	18.9	1.2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69.5	47.6	19,800	0.5	3.7	2.9	20.4	9.0	8.2	0.8	0.7	8.8	9.0
성광밴드	337.5	16.6	11,800	1.3	6.3	3.5	3.5	1,043.1	42.3	0.7	0.7	0.1	1.8
태광	314.0	11.7	11,850	2.2	5.8	-2.1	1.3	70.8	34.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007.1	10.0	7,440	6.4	4.5	-22.7	-11.4	-22.3	13.3	0.3	0.5	-0.1	3.2
두산인프라코어	1,513.3	17.0	7,270	0.0	-2.2	-16.1	-4.2	5.0	5.4	0.8	0.7	17.7	13.4
HSD엔진	134.1	3.3	4,070	2.4	-15.4	-22.5	-22.9	-10.7	N/A	0.6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445.7	16.1	35,350	1.0	-2.2	5.1	10.8	51.6	22.9	3.1	2.9	6.1	13.6
한화테크윈	1,623.6	14.4	31,200	1.0	-10.0	1.5	-4.0	129.3	25.0	0.7	0.7	0.6	2.8
LIG넥스원	822.8	7.8	37,400	-0.1	-3.4	8.2	1.2	86.1	37.8	1.7	1.3	2.4	3.6
태웅	206.1	3.9	10,300	1.0	2.5	-7.2	-1.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64.4	6.4	9,800	2.9	12.6	21.1	26.9	-20.7	17.7	3.6	3.0	-16.2	18.5
한국카본	376.3	14.9	8,560	1.2	6.1	14.4	21.6	133.3	22.5	1.2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etails of Qatargas' bumper LNG tender start to emerge

Qatargas는 150억달러 규모 LNG선 80척 발주를 위해 5월 말까지 입찰제안서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2023년부터 인도하는 확정 40척과 옵션 40척이 포함, 대략 2026년까지 매년 10척을 인도받길 원함. 선형은 20만CBM급이 될 수도 있음. 인도가 23년에 예정되어 건조계약은 20~21년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적인 slot 확보에 노력할 전망이다. (TradeWinds)

현대중, 조선 수익성 개선 · 총당금 환입에 '흑자전환'

현대중공업은 1분기 매출액 3조 2,685억원(+7.4% YoY), 영업이익 281억원(흑자전환), 당기 순이익 173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함. 호실적의 배경은 조선부문 신규수주 선박에 대한 공사 손실충당금 설정 감소와 전기 및 환율상승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부문도 Gorgon LNG 프로젝트 하자보수충당금 환입이 반영되어 흑자 전환함. (아이뉴스24)

Speculation swirls around suezmax tanker resale swoop by John Fredriksen

노르웨이 선박왕 John Fredriksen은 터키선사 Active Shipping이 보유한 suezmax 탱커 1척을 Resale로 구매하기 위해 접촉 중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 2015년 말에 발주했고, 인도는 2020년 여름 예정됨. Resale 가격은 6,6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선사간 합병은 탱커선사 상승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협 상건례...교섭 본격화

현대중공업 노사는 2일 본사에서 2019년 임금협상 상건례를 열고 교섭을 본격화함. 노사는 향후 단체교섭 일정 등 기본사항을 협의함. 노조는 앞서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함. 노조는 31일 예정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올해 임협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연합뉴스)

ExxonMobil beats Qatar to secure shipyards' LNG offers

Qatargas의 대규모 LNG선 입찰에 앞서, ExxonMobil은 조선소에 LNG선 8척에 대한 입찰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입찰을 4월에 시작, 발주 규모는 2+6척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2023년으로 예정됨. 해당 선박은 파푸아뉴기니의 PNG LNG 프로젝트 증산에 필요한 선박으로, 프로젝트 첫 생산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현대중공업지주, 1분기 영업이익 1445억...자회사 수익성 개선

현대중공업지주는 1분기 매출액 6조 4,915억원(+3.2% YoY), 영업이익 1,445억원(-55.9% YoY), 순이익 976억원(-47.5% YoY)을 기록함. 4Q18 영업이익은 -1,639억원으로 부진했으나, 1Q19에 정유부문 재고평가이익으로 흑자로 전환함. 또 전분기 대비 현대건설기계도 판가 인상 및 환율효과로 수익성을 회복함. (조선비즈)

IMO 2020규정 미 준수 선박 항행 불능 판정 받을 수도

IMO는 2020 규정에 앞서 검사관이 0.5% 황산화물 규제 준수여부를 조사할 때 SIP(Ship Implementation Plans)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준연료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선박이 항행불능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임. IMO 2020 규제는 미준수 시 항행불능, 벌과금 또는 구류 등으로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선박뉴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공장 총주 제5산단 이전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도 이전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충북 충주 제5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총 2,500억원을 들여 생산시설 등을 갖출 계획임. 기존 이전 본사와 공장 터는 SK하이닉스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200여명의 임직원과 300여개 협력업체를 거느린 기업임. (뉴시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편면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